

제주굿의 깃발과 종이무구*

문 무 병**

차 례

1. 굿판의 아름다움-바람에 대하여
2. 굿판을 움직이는 신바람, 기메·전지
3. 기메, 굿판의 미학적 완성
4. 결론

1. 굿판의 아름다움—바람에 대하여

굿판은 왜 아름다운가. 굿밭¹⁾에 가서 굿판을 직접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만 가지고 신나서 “야, 멋있다.” 또는 제의적인 분위기에 신 지퍼 “대단히 스펙터클 해!”한다든가, 신명나는 판의 분위기를 보고는 “야, 뭔가 에너지가 넘치네.”라고 굿판을 이야기하며, 최근 굿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굿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녹아 있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해답을 위해선 보다 폭 넓은 이해와 함께 ‘굿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 고민도 있어야겠다고 생각된다.

* 이 글은 근간 예정 저서 『굿의 기메전지-제주 굿판의 아름다움』을 요약하여 논문으로 정리한 글이다.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1) 굿하는 장소.

최근에는 예술 쪽에서 굿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의 열정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굿판에서 흔들리는 '기메·전지'의 아름다움에 대한 발견이었고, 그 미학적 실체를 찾으려는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람에 대한 명상>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바람꽃, 제주 땅을 지키는 바람의 신 브름웃도, 한 집안에 불어오는 불행의 바람을 막고, 한해의 바람을 모아 치렁치렁 마을 사람들의 열명을 걸어놓고, 한해를 지켜주는 토지관을 모신 신당의 바람꽃, 바람나무, 그리고 굿판에 신과 인간이 구축한 상징의 구도 안에 만든 인공물이면서, 굿판을 장식하는 지전물색에 대한 의미를 쫓는 작업, 한편의 시를 완성하는 과정처럼 상징으로 눈부신 세계를 명징하게 그려내는 작업이 굿판에 대한 명상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도 굿 연구의 시작이며, 제주굿의 아름다움의 실체를 밝히는 글이었으면 한다. 바람 많은 섬 제주 자연의 바람과 만나는 제주사람들이 바람소리를 들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바람을 그리면서 사용한 종이와 나무가 살려내는 신바람과 신명을 생각해 본다.

바람 속에 흔들리게 한 미미한 물체, 가까이서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지전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인데, 이러한 소위 제주어로 말하여 흔들리는 '기메'와 흔들리는 '전지'에서 살아나는 신명은 보통 이야기로 풀 수 없는 아름다움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근본이 되는 신체(神體)를 이야기해보자는 것이 이 글의 화두로 떠올리는 <바람에 대한 명상>의 출발이다.

2. 굿판을 움직이는 신바람, 기메·전지

2.1. '기메[旗類]'와 '전지[紙類]'를 오리다.

굿판[祭廳]의 준비는 굿밭[祭場]에 심방들이 모여 마당에 큰대를 세우고, 상방 마루에 당쿨[祭棚]을 매고, 큰방과 마당에 제상[祭床]을 차리고,

심방들이 '기메전지'를 오려, 걸 것은 걸고, 맬 것은 매고, 놓을 것은 놓고, 세울 것은 세워야 굿판은 완성된다. 굿판을 비현실적이게 하는 것, 신비롭게 하는 것은 백지를 오려 오만가지 공예품들을 여기저기 오려 놓고 세우면서 신들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

이렇게 완성된 굿판은 신들이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와 머무는 동안 신을 모시고 굿을 하는 장소인데, 굿판에 나오는 모든 깃발류[旗類]와 창호지나 백지, 색종이를 오려 만든 모든 '전지류[紙類]'를 통칭하여 '기메전지'라 하며, 대표성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한 때는 줄여서 '기메'라 한다.

'기메'를 종이무구, 종이공예, 굿판의 장식, 무대장치라는 식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메를 중심으로 굿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초감제 전에 마당에 가장 대표적인 기메 중의 하나인 큰대²⁾ -'대통기'나 '월덕기'-를 세우고, 그 앞에서 지내는 '기메고사³⁾'가 있다. 기메고사는 '기메·전지'를 다 오려 굿 준비를 끝내고 맨 처음 하는 시작 굿이다.

아무튼 '기메'는 굿과 굿판의 상징물이며 상징어이다. 생대나무 가지에 바람지[紙]를 깃발로 단 기메를 이 글에서는 기메[旗類]와 지전[紙類]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겠고, 대표적인 통칭으로 '기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기메전지'는 굿판을 장식하여 신들의 세상으로 만들고,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현실세계의 인간들과 감응하게 하는 굿판의 상징물이며, 신을 인도하는 깃발이며, 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이며, 신의 자리 또는 신의 영역, 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징표이며, 굿을 할 때 쓰이는 소도구, 신

2) 큰대는 큰 대나무에를 무명으로 싸고 대통기, 등진거리, 생술가지, 태극기 등 여러 가지 기메를 달아 마당이나 대문 앞에 세우는 큰 기[大形旗]를 말한다.

3) '기메고사'는 굿을 준비하며 제작한 모든 기메[旗類]를 작은 제상에 올리고 공깃상, 태령상과 함께 큰대를 세운 앞이나 상방 마루 문앞, 즉 문전[門前]에 차려놓고, "어느 달 어느 날(굿을 하는 날) 어떤 연유로 축원을 올리게 되었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초감제>를 시작하여 1만8천 신전님들을 모시고, 사당클을 매고 '기메전지' 벌여서 <기메고사>로 전생팔자 굿은 옛선생 일월조상[심방의 조상들]님께 일배한잔 올립니다."는 내용의 사설을 창하고 나서 댕뉘오로 술을 적서 뿌린다.

의 세계 신들의 사는 궁전의 무대장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기메’의 의미를 조목조목 풀어나가는 가운데 제주 곳의 신비와 아름다움의 숨은 뜻[暗喻]을 풀어내는 것이 이 글을 쓰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굿하는 장소, 마을의 신당이나, 집안의 제청을 신들의 세계로 재구성하는 굿판의 상징물로서 ‘기메전지’는 이승세계에 신들을 초청하고 모시는 굿판[祭廳]을 실제 신들의 좌정한 공간으로 완성해 나간다. 그렇다면 신바람을 만드는 ‘기메전지’는 이승의 공간을 어떻게 신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는가. ‘기메전지’는 굿판의 구조와 위치에 따라 신의 영역, 신체, 무대장치, 기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현실적인 의미까지 합쳐져 굿판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메의 연구는 무속연구, 신화연구, 신앙의례연구를 떠나 굿예술연구, 종이공예[紙工藝]라는 종이무구연구나 미학의 연구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연구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2. 하늘 길을 여는 우주목(宇宙木) ‘큰대’를 세우다.

제주 곳의 가장 큰 깃발, 큰대는 마을의 토주관 본향당신을 모신 신당의 당나무[神木]와 같은 우주의 나무[宇宙木]를 집안에 임시로 설치한 상징적인 깃발이다. 우주목이란 하늘 길을 여는 땅의 가장 높은 산 정상 신목(神木)으로 신의 내려오는 길[下降路]이며, 신이 깃드는 신체(神體)이다. 큰대는 땅의 가장 높은 곳-태백산의 신단수, 당오름의 팽나무-에 있는 당나무[神木]와 같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임시로 집 마당에 가설한 당나무이다. 하늘의 모든 신들은 <초감제> 때, ‘군문열림’을 하여 ‘하늘 신궁의 문’이 열리면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굿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한 신들의 세계, 저승을 설계한 당클과 계상을 하늘과 이어주는 굿발의 기메 중 가장 큰 기메[깃발]인 큰대를 세우는 것은 이 지상에 신들의 세상 새로운 큰 굿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굿을 하려면 먼저 심방들이 굿발에 모여 기메를 올린다. 기메를 다 오리

면, 기메고사를 하고, <기메고사>가 끝나면, 마당에 큰대를 세운다. 수심방[首巫]은 소미[小巫]를 데리고 관복차림[紅袍冠帶]으로 큰대 앞에 서서 소미[小巫]로 하여금 전 약기를 세 번 울리게 하고 세 번 절한 다음, 좌뚝기, 우뚝기에 각각 3배하고 큰대를 세우고 나서 상방마루에 들어가 <초감제>를 시작한다.

큰대는 그 자체가 대형의 '기메'이며, 큰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기 또는 월덕기, 태극기, 등진거리, 대를 감고 있는 광목[下降路], 동백꽃, 땃가지 등 큰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상징물이며 신체를 나타내는 작은 기메들이다.

[천지월덕기]

천지월덕기⁴⁾를 세우면, 조상들이 다 그걸 가능하면서 내리시라 하는 건데, 큰곳을 한다는 표시지. 또 하나는 젓부기삼형제⁵⁾ 뉘인데 위의 기(旗)는 하늘에 알리는 표시이고, 또 봉우리 세 개 한 것은 젓부기 삼형제를 표시한 것이고, 이렇게 별려가지고 한 것은 양손 어깨 그걸 표시한 거고, 지를 싸서 달아맨 것은 말안장을 표시한 거고, 거기 요령을 달아맨 것은 왕방울을 표시한 것이다. 왜 심방집이든 사가 집이든 간에 젓부기삼형제를 표시하느냐? 심방의 기능이 익숙해지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왜 그런 표시하느냐 하면, 신도법(=굿법)은 젓부기 삼형제가 만든 법이기 때문이지요. 신도법은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시해서 조상들이 큰대를 타고 내리시라는 거지요.⁶⁾

큰대를 세워야 하늘 길이 열리고, 큰대를 통하여 신들이 지상에 하강(下降)한다면 하늘과 땅, 굿밭 사이에는 하늘을 잇는 신들의 하강로, 하강한 신들은 어디에 내려오며, 내려온 신들을 안내하여 굿판으로 모셔오는 과정, 굿청에 좌정하는 과정까지 조목조목 살펴보고, 폭넓게 이해를 할 수는 없을까. 신들의 이동경로를 큰대를 세운 의미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4) 대통기 대신 달아매는 번기.

5) 심방의 조상신 무조(巫祖) 삼형제, 아궁이에서 불을 때고 제 심부름하며 제 위에서 글공부한 삼형제란 뜻.

6) 1994년 10월 24일 수심방 이증춘 옹과의 대담.

살펴보기로 한다.

- 1) 하늘의 신들은 노각성 자부연줄 꼭줄(줄다리) 타고 내려온다.
하늘→수직하강[垂直下降]
- 2) 하늘과 통하는 당나무[宇宙木]가 있는 신당에 신들이 도착하다.
곳 : 군문열림[天宮開門]→수직하강
- 3) 도착한 신들은 본향당신의 안내를 받아 굿판으로 이동한다.
신당→오리정신청궤[水平移動]→굿판[祭廳]

큰대는 하늘에서 내려와 제장에 도착 좌정할 때까지를 신들의 영역과 인간세계를 압축하여 그리고 있는 당나무[神木]를 굿발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살아있는 우주목이기 때문에 맨 끝에는 생죽 잎의 가지가 그대로 붙어있다. 그리고 큰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노각성 자부연줄(=줄다리)이기 때문에 큰대를 감고 있는 흰 광목과 집안 상방으로 다리가 이어지며, 하강 전의 신들이 깃들여 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신체이며, 천룡처럼 꿈틀거리며, 굿을 하여 군문을 여는 무조신(巫祖神) 젓부기 삼형제의 신체로서 등진거리를 달고 있다. 이와 같이 큰대는 다의적인 의미상징의 복합체로서 굿판의 대형 깃발인 것이다.

굿판의 수수께끼는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혼재해 있다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기메전지, 큰대, 당클, 신다리, 신자리, 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제상에 와 있는 1만8천신들이다. 굿판은 상설이 아니다. 굿하는 동안,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 있는 동안의 시간과 공간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원초의 시간에서 오늘날까지의 시간과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특수상황의 굿판은 기메·전지로 완성된 저승의 무대장치와 같다. 이승에 앉아 저승을 보면, 그 때야 우린 굿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

2.3. 당클을 매다. 지상에 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다

당클은 상방[上房] 마루 위쪽 사면 벽에 널빤지를 선반처럼 달아맨 제붕[祭棚]이다. 당클은 굿판에 임시로 건설한 신들의 궁전으로 그 특징은 ‘살장’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다. 당클의 기메전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세계, 즉 ‘궁전’을 상징하는 전지[紙錢類]인 ‘살장?’을 비롯하여, 살전지, 발지전과 너울지, 청사초롱, 오방기와 오방각기 등으로 둘러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지전류가 궁전을 장식하는 상징물인 것으로 보아 당클은 굿판에 임시로 건설한 신의 궁전이다.

제주의 큰굿은 방에 제상을 차리는 것 이외에 반드시 제주형 가옥의 중심에 위치한 마루방 사방 벽에 설치한 <당클>을 기본 제상으로 삼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대상 신령에 대한 제상과 제의의 진행에 필요한 제상 대령상, 공깃상, 보답상을 큰상 앞에 차린다. 사방 벽에 당클을 맨 굿을 4당클굿이라 하며, 이때 4개의 당클은 신의 나라를 4개의 영역으로 분할되고, 신들의 나라는 하늘에서 땅까지 4개의 단계로 구분지어 각 신역의 위계를 나타낸다.

- 천제석궁 당클: 심방이 죽어서 간다는 삼시왕, 영생의 신계
- 열두시왕 당클: 이승의 사람이 죽어서 가는 죽음의 세계, 저승
- 문전·분향 당클: 마을과 집을 차지한 신들의 세계
- 마을·영신 당클: 상 마을에 간 영혼과 죽어 3년이 지나지 않은 영가

네 개의 당클을 다 매고 이레 동안 기도하는 4당클굿을 큰굿이라 한다. 네 개의 당클을 다 매지 않고, 2, 3개의 당클을 매고 3, 4일 동안 하는 굿을

7) 살창. 살창문. 좁은 나무나 쇠창살로 사이를 떼어 나란히 박아 만든 창문. 굿에서 말하는 ‘살장’은 살창의 뜻이지만 죄인을 가두는 감옥의 쇠창살이란 의미보다는 신을 모시는 궁전의 무늬가 새겨진 커튼 역할은 하는 전지[紙錢類]란 의미의 살창. 무늬에 따라 모람장, 비꿀장, 고무살장과 같이 신을 모시고 있는 자리의 여러 종류의 커튼으로써 살창.

중당클긋이라 한다. 당클은 신의 세계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신들의 위계 순서에 따라 가장 높은 신중의 신 옥황상제부터 긋을 해 나간다. 신의 위계는 긋을 하는 순서와 같기 때문에 신의 계보를 ‘젯다리’(제를 지내는 순서)라 한다. 그러면 당클에 모신 신들과 긋의 제(祭)의 차례를 같이 살펴본다.

당클과 젯다리는 신의 이름은 가장 높은 신 ‘옥황상제’부터 순서로 나열해 놓은 것으로 신들의 위계와 직능을 함께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두 개의 하늘 당클[兩宮]과 젯다리[祭順]).⁸⁾

2.3.1. 삼천천제석궁[三千天帝釋宮] 당클

가장 높은 하늘의 천신들을 모신 당클로 상방 마루 좌측에 모신다. 이곳의 신들은 영생의 신들이며, 이승에서 신격을 담당하던 심방이 죽어서 간다는 삼시왕이다. 젯다리로 보아 천궁 또는 천제석궁의 신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옥황상제……하늘을 차지한 신
- ② 지부사천대왕……땅을 차지한 신
- ③ 산신대왕, 산신백관……산을 차지한 신
- ④ 다섯용궁[大使龍宮]……바다 차지한 신
- ⑤ 서산대사, 육관대사……절 차지한 신
- ⑥ 명진국할망……아이를 지켜주는 산신
- ⑦ 흥진국 대별상, 서진국 마누라……마마 신[天然痘神]
- ⑧ 날궁전, 달궁전……일월신
- ⑨ 초궁 젯부기 삼형제……무조신
- ⑩ 이궁 꽃감관 꽃성인……서천꽃밭 주화신
- ⑪ 삼궁 가문장아기……전생 인연신

2.3.2. 열두시왕[十二王宮] 당클

천제석궁 보다는 낮고 다른 쪽에 있는 하늘로 상방 마루 우측에 모신

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22-23.

다. 이곳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 세계다. 시왕당클의 신들은 다음과 같다.

- ⑫시왕[十王]……저승과 인간의 생명을 차지한 신
- ⑬차사(差使)……시왕의 사자
- ⑭맹감[冥官]……명부의 사자
- ⑮세경할망 자청비……농경신

여기까지가 하늘의 제2궁 저승 열두시왕 당클의 신이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저승이 땅밑(지하)은 아니며 천제석궁과는 다른 쪽에 있고 천제석궁보다는 위계가 낮은 신의 영역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2궁 시왕당클의 최하위신이라는 농경신 세경할망은 당클 안에 모시지 않고 채룽에 제물을 차려 당클에 달아매는데 이를 세경신 채룽이라 한다. <세경본풀이>에 의하면 곡식을 키워주는 것도 세경[땅]의 덕, 엄토감장[埋葬]도 세경의 덕이라 하는 것으로 보면, 사람이 죽어서도 땅에 묻히고, 농사 짓는 것도 땅에서 하는데, 죽음과 생산이 모두 땅에서 이루어지면, 죽어서 가는 하늘과도 관련이 있고 생산과도 관련된 세경신이 시왕당클 하늘의 영역에 소속됨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생산의 신역은 땅과 하늘의 협작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큰곳에서 시왕맞이, 세경놀이 등 시왕당클 앞에서 이루어지는 굿들이 끝나면 <양궁숙임>을 한다. 양궁숙임은 양궁의 대상신을 위한 굿이 끝나고 큰대를 내리는 굿이다. 이때는 마당에 세운 큰대를 내리는 동시에 당클을 푼다. 하늘 양궁의 굿이 끝나면, 나머지 굿은 땅의 신들을 위한 굿이며, 하늘의 신들을 보내는 <송신굿>이기 때문이다.

2.3.3. 문전·분향 당클

- 군웅·일월조상……일가 내지 씨족 수호신
- 성주신 강태공서목시……가옥신
- 문전신 남선비……문신

□본향토지관……마을 수호신

2.3.4. 마을·영신 당클

□영혼, 혼백, 마을……모든 조령

□칠성……부신(富神)

□조왕……부역신

□오방토신……방위 및 집터의 신

□주목지신, 정살지신……집의 출입로 입구를 지키는 신

□울담·내담지신……울타리의 신

□눌굽지신……날가리[露積]의 신

이외에도 젓다리에서 빠뜨린 신으로,

칠원성군……수복신[壽福神]

구삼신……어린 아이의 사혼을 차지한 신

변소의 신……칙도부인 등이 있는데,

신화에 의한다면, 칠원성군은 남선비의 아들 녹디생이를 비롯한 칠형제, 칙도부인은 남선비의 첩, 모두 문전본향 당클의 곳에서 다룰 수 있는 신들이다.

2.4. 다리를 놓다. 신이 걸었던 길을 걷다.(신질 발루다⁹⁾)

다리는 길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노각성 줄다리’와 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 하강로(垂直下降路)가 있고,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을 오리 밖까지 가서 제장으로 모셔 오는 수평 이동로라는 두 가지 의미의 ‘다리’가 있으며, 이 모두 길이며, 하늘에서 현실세계에 내려와 신당에서 굿판으로 신들이 왕래하는 길이다.

9) 신이 걸었던 길을 바르게 고치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신이 걸었던 바른 길을 간다는 뜻.

다리는 신길이다. 맞이곳 질치기(길뒹이)의 대상이 되는 가시덤불[荊棘]이며, 이 길을 잘 치우고 닦아 광목천을 깔아놓은 것을 '다리'라 한다. 제주도의 곳곳에서 '일월맞이', '불도맞이', '초·이공맞이'라 할 때, '맞이'라 하는 곳은 신을 맞이하는 곳[迎神儀禮]이다. 신이 오시는 길, 영혼이 떠나는 길을 닦고 신을 맞이하거나 영혼을 저승으로 고이 보내는 곳이다. 맞이곳에서 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길을 닦는 곳을 특히 '질침곳' 또는 '질치기'라 한다. 이러한 길을 닦는 의례는 '신 길을 바로잡는' 것이며, '다리를 놓는' 것이다. 신 길을 바로잡는 것은 신이 오시는 길, 인간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는 것이다. 이 길을 닦아 하얀 광목 천을 깔았을 때, 길은 완성된다. 그 길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길이며, 망자가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고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신 길을 바로잡았으므로 신의 질서를 좇아갈 수 있는 이승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앞에 가는 신의 길을 인간이 차례차례 밟아 가는 이치는 백범 김구 선생이 눈길 위에 남긴 발자국 같은 것이다. 다리를 놓는다는 말에는 차례와 순서를 밟는다는 뜻이 있다. 동시에 과정을 밟는다는 뜻도 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 길을 밟는다는 것은 질서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신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상생의 의미를 지닌다. 신인동락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ㄷ리(다리)의 의미:

무속은 근거가 없고, 정확성을 잘 안 띤다. 때문에 굿을 할 때는 한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 구분을 잘하라, 우리 제주말로는 "굽을 잘 가르라." "ㄷ리(橋)를 잘 가르라." 옛날에도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ㄷ리를 잘 알고, 잘 배우라" 했는데, ㄷ리(다리)는 굿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한계를 구별하라는 말이다.¹⁰⁾

이와 같이 '젯다리'의 다리는 제를 치르는 순서를 뜻한다. 큰곳의 모든

10) 1994년 10월 24일 서순실 심방집 중당클곳에서 수심방 이종춘 옹과의 대담.

제순(祭順)은 당클(祭棚)과 제순대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큰굿이 <기메고사>를 하고, 이어 <초감제>를 시작하여 맨 마지막 <도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작은 제차의 진행방법은 '젯다리'의 신들의 위계에 따라, 제1당클 천제석궁 [三千天帝釋宮]당클에서 제4당클 마을영신당클까지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굿을 '차례차례 재차례굿'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차례 차례 재차례 굿'이란 모든 굿의 절차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굿법에 어긋남 없이 행하는 굿이며, 이러한 굿의 완성은 사가집의 큰굿이나 심방집의 큰굿인 신굿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상청(上廳)드리: 상청은 제일 윗 계위의 신을 뜻하고, '드리'는 신이 하강하는 길이라 하여 굿할 때 밟아 오도록 깔거나 걸어 놓은 긴 무명의 다리.

□ 할망다리 40자: 삼심할망이 지나갈 다리(긴 무명)를 뜰에 차린 할망상에서부터 방안 벽장의 할망상까지 걸쳐 놓고 수심방이 철쭉막대를 짚고 그 무명다리에 기대어 잡아 추끼며 늙은 할머니 걸음으로 어정어정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할망다리 추킴>이라 하는데 이 다리를 할망다리라 한다.

이외에도 '드리'는 모든 맞이굿에 나온다. 칠원성군드리, 일월드리, 초공드리, 이공드리, 시왕드리, 본향드리, 당주드리 등.

3. 기메, 굿판의 미학적 완성

3.1. 기메의 종류

제주 굿의 기메에 관한 연구는 현용준의 <제주도무의의 '기메'고 무속의 신체 형성의 일면>이라는 중요한 글이 있다. 본장에서는 그의 글을 토대로 하여 제주 무속의 종이무구 기메·전지를 정리 보충하였다.

3.1.1. 기의 종류(旗類)

①감상기...가로 34cm, 세로 55cm의 백지를 길이 90cm 내외의 잎이 푸른 댓가지에 묶어 맨 것이다. 이 백지는 위쪽을 삼각이 되게 접은 것인데,

이를 <책지>라 한다. 결국 책지의 한쪽 귀퉁이를 잎이 푸른 대 위 부분에 묶어 맨 셈이다. 이 기는 굵을 할 때 공깃상[巫祖神의 祭床]¹¹⁾ 위에 놓아두었다가 청신의 제차 곧 초감제의 <군문열림>을 하여 신을 제상까지 모셔들이는 대목에 요령과 함께 손에 들고 춤을 춘다. 춤은 요란한 도랑춤[回轉舞]이며 춤을 추어가면 <책지>의 상반부, 삼각으로 접은 것이 풀어져 잎이 푸른 대막대기에 백지 한 장을 묶어 맨 것이 된다. 청신이 끝나면 이 감상기를 다시 공깃상 위에 넣어 둔다. 심방은 이 기를 마을을 지켜주는 본향당신의 역할을 하는 기라하며, 이 기를 들고 춤을 추며 청신하는 것은 본향당신이 나아가 마을의 문을 열고 여러 신들을 맞아들이는 이치라고들 말한다.

[감상기의 구별]

감상기의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런 물색을 맨 건데, 그것은 왜냐면 빛감상이다 안감상이다 하는 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문을 열 때에도 초감제는 그렇게 문을 엽니다.

천황 초군문 지황 이군문 인황 삼시도군문, 동의 청문, 서의 백문, 남의 적문, 북의 흑문, 중앙 황신문, 일월 조상문, 연양당쫄문, 당쫄문을 거느릴 때는 어주애삼늑거리 팽자성인 유자성인 서강베포땅 문, 그건 젓부기 삼형제가 서강베포땅에 신전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서강베포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그러니깐 그 의미를 알아서 굵을 해야 배우는 선생님네들이 좀 이해하지, 무턱대고 초공입니다, 당주입니다 하면 뭐가 뭔지 정신이 헛갈린단 말입니다.¹²⁾

②채숫기[差使旗]…길이 90cm 내외의 잎이 푸른 댓가지에 백지 한 장의 상반부를 삼각으로 접은 <책지>와 창호지 1/4장을 사람 모양으로 오려낸 것을 묶어 맨 것이다. 창호지를 사람 모양으로 오려 내되 얼굴 부분은 없고 몸통과 발 부분만을 사람처럼 사실적으로 오려내는데, 기교를 가

11) 굵을 하는 데 필요한 명두(요령, 신칼, 산판)와 감상기 등을 놓아두는 무구 즉 무조신을 모신 상.

12) 1994년 10월 24일 수심방 이종춘 옹과의 대담.

한 것은 몸통 부분에 네모진 구멍을 2~3줄 뚫어 놓기도 하고, 책지에 또 창호지로 사람모양으로 오려낸 것을 차사의 상징이라 하며, 책지에 덧붙인 사람 모양은 차사를 따르는 사령을 상징한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기교를 가하지 않은 것은 감상기에 사람모양으로 오려 낸 종이(人形紙製物)를 더 묶어 맨 형태이다.

이 기는 시왕맞이 때, 차사상의 종안, 위패 자리에 꽂아 두었다가 사령의 저승길을 치워 닦는 제차인 <질치기> 대목에 심방이 이 기를 들고 열두문을 돌아보고, 치워 닦는 행사를 한 후, 다시 원 위치에 꽂아 놓는다. 이 기는 차사의 상징이라 여기고 있고, 이 기를 들어 춤을 추는 것은 차사가 지옥문을 돌아보는 의미라고 말한다.

③영겟기[靈魂旗]...체숫기와 비슷한 크기로 역시 감상기에 인형지제물을 덧붙인 형태다. 인형지제물은 창호지로 사람 모양으로 오려 내되 다리와 발 부분은 사실적으로 오렸지만, 몸통 부분이나 얼굴모양은 거의 구분 못하게 오렸으며 팔부분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팔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오려 있다. 근래 기교를 가한 것은 책지에 붉은 색종이로 문 모양을 오려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혼백상의 문을 상징한 것이라 한다.

이 기는 시왕맞이 등 무혼의례 때에 영겟상[靈魂床]의 위패 위치에 꽂아 두었다가 <질치기> 대목에 심방이 체숫기와 함께 들고 춤을 추며 길을 치워 닦는다. 이 기는 사령의 상징이라고 심방들은 말한다.

④성주기...이 기도 감상기에 인형지제물을 묶어 맨 형태다. 묶어 맨 책자에는 아무런 기교도 가하지 않은 것이 일반이며, 사람 모양으로 오려놓은 것은 다리와 발 부분은 사실적이거나 그밖에는 추상적이어서 발부분을 보지 않으면 사람모양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어있다. 이 기는 성주풀이 때에 제상의 중앙, 위패의 위치에 꽂으며, 성주신을 상징한 것이라 한다.

⑤군문기...길이 40cm 정도의 사람 모양을 창호지로 오려 얹어 푸른 대에 묶어 맨 것이다. 사람 모양으로 오렸다 해도 다리와 발 부분은 사실적이거나 그 외 부분은 추상적이어서 얼른 구분이 안 가게 되어 있다. 결국 체숫기의 형태에서 책지가 탈락한 것이 된다. 이 기는 청신의 제차가 끝나면

<올래(집안에 드나드는 길)>의 양 어귀에 꽂아 놓는다. 이 기를 꽂으면 신이 출입을 못한다 하여 이미 모셔 놓은 신을 나가지 못하게 하며, 잡신의 출입 방지를 위해 꽂는 것이다. 굿이 끝나 송신을 할 때는 이 기를 뽑아서 보낸다.

⑥살전기...90cm 내외의 잎이 푸른 대에 책지의 인형지제물 그리고 <발지전(발 모양의 것이 달리게 오려낸 지전)을 묶어 맨 것이다. 곧 이미 말한 영젓기의 형태에 발지전이 더 붙은 형태다. 이 기는 큰굿을 할 때 <삼천천제석궁당클(마루방 사벽에 선반처럼 매어 놓은 제상의 하나)>의 중앙, 위패 위치에 꽂아서 위패 대신으로 쓴다.

⑦오방기...창호지로 길이 40cm 정도의 사람 모양을 오려 만든 것이다. 이 기는 다리와 발 모습 뿐 아니라 얼굴의 눈, 코, 입까지 구멍을 뚫어 매우 사실적이다. 이 기에는 잎이 푸른 대에 묶어 매지를 앓고, 청신의 제차가 끝나면 집안의 오방에 붙여 신의 출입을 방지하고, 굿이 끝나 송신할 때는 떼낸다.

⑧오방각가...창호지로 길이 20cm 내외로 사람모양을 오려 만든 것이다. 이것은 오방기 모양으로 사람의 눈, 코, 입 등 구멍을 오려내고, 다리와 발도 사실적으로 만들었다. 오방기의 축소형이라 할 만하다. 그 기능은 오방기와 같이 신의 출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청신의 제차가 끝나면 집안의 각 문에 붙여 두었다가 굿이 끝나 송신할 때는 떼낸다.

⑨줄전기...창호지로 사람의 다리, 발, 팔 등을 또렷하게 오려낸 것이다. 얼굴의 모습은 오려 내지를 앓았다. 이 기는 잎이 푸른 대에 묶어 매는 일이 없이 큰굿의 4당클을 맬 때 각 당클의 좌우에 하나씩 달아맨다. 이 기에는 당클에 좌정한 신을 지키는 기능을 한다 하며, 신을 당클에서 내리게 하거나 보낼 때는 이 기미를 걸어야 한다.

⑩시왕기...창호지 한 장 반을 길이로 붙이고, 밑 부분을 길이로 세 줄을 꿰은 것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려 낸 흔적이 없다. 이 기에는 시왕맞이를 할 때 시왕상의 중앙 부분의 병풍에 걸어서 시왕의 신체를 삼는다.

⑪맹감기[冥官旗]...시왕기와 같은 길이의 창호지 밑 부분을 다른 기메

의 발 부분 모양으로 오려 낸 것이다. 이 기메도 시왕맞이 때 시왕산의 중앙 부분, 병풍에 시왕기와 나란히 걸어서 멍감(冥官)의 신체를 삼는다.

⑫칠원성군 송낙…창호지로 가로 25cm로 만든 송낙(고깔)인데, 대나무 위 부분을 조금 깨어 접혀 끼운 것이다. 불도맞이 때에 칠원성군상에 7개를 나란히 세워 칠원성군의 위패 대신으로 쓴다.

⑬할망 송낙…칠원성군송낙 앞면에 소지와 인형을 오린 종이를 덧붙이고, 뒷면에 지폐를 한 장 끼워 붙인 것이다. 소지는 백지를 길쭉하게 접은 것이고, 인형을 오린 종이는 창호지로 사람의 얼굴, 눈, 코, 입과 다리와 발 부분을 사실적으로 또렷하게 오려놓은 것이다. 이 기메는 불도맞이를 할 때 산육신의 삼승할망상에 3개를 세워서 위패 대신으로 쓴다.

⑭칠성신상…창호지를 접어 묶어서 서려 얹은 뱀 모양을 만들고 쌀을 담은 사발에 세워 얹힌 것이다. 뱀신인 <칠성>이 준 병을 치료하는 <칠성 새남굿> 때 위패 대신 제상 위에 넣는 것이다.

⑮큰대…일반굿이나 당굿 등 큰굿 때에 제청 바깥에 세우는 것으로 높이 4~5m의 장대 끝에 얹어 푸른 대를 묶고, 다음 월덕기 또는 번기라고 하는, 창호지 3~4매를 길이로 붙여 만든 기를 달고, 그 아래에 푸른 솔잎을 묶고 또 요령을 달아맨 것이다.¹³⁾ 이 큰대에 긴 무명 또는 광목의 한쪽 끝을 묶어 매고 그것을 집안의 제상까지 연결시켜 놓는데 이를 <드리>라고 한다. 청신을 하면 신은 이 큰대를 통하여 하강하여 <드리>를 거쳐 제상까지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위의 것들과 또 다른 유형이다.

3.1.2. 전지류[紙錢類]

□ 지전[紙錢]

지전은 저승 돈이다. 굿을 할 때 보면, '저승 돈은 지전, 이승 돈은 금전(金錢)'이라 한다. 지전은 창호지를 오려 구멍을 일정하게 뚫은 종이를 신당의 나무에 걸어 놓기도 하며, 굿을 할 때 각종 맞이굿의 <질치기>에 다

13) 현용준, 「제주도 무의의 기메고」, 『문화인류학』 제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p.144 도표 참조.

리마다 덮어 놓기도 한다.

□ 소지...백소지권장

지전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지만, 그냥 백지를 걸어 놓은 것이 있다. 이 백지는 저승돈이 아닌 '백소지권장'이다. 백소지권장은 글을 모르는 사람의 말 못할 사연을 신에게 아뢰는 솟장의 일종이다¹⁴⁾.

□ 적배지[赤牌旨]

명왕(冥王) 염라대왕의 명(命)을 기록한 문서다. 붉은 종이에 흰 글자를 쓴다 하며 차사가 가지고 와 죽기로 된 망자의 집 대문에 붙이면, 그날 그 시간에 목숨이 끊어진다[終命] 함.

□ 지(紙)...영혼지·요왕지

지(紙)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백지로 싼 것으로 영갓지[靈駕紙, 靈魂紙]는 영신(靈神)에게 드리기 위해 제물을 조금씩 떼서 백지에 싼 것이고, 요왕지[龍王紙]는 해녀들의 바다밭[海田]을 차지한 요왕[龍王]에게 바치는 제물을 백지에 싼 것이다.

<지아뿔> 또는 <지들임>란 제차가 있다. 영등굿과 같이 바다와 관련된 굿을 할 때 굿의 마지막에 용왕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대접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제물을 조금씩 싸서 바다에 던지는데 이를 <지드림> 또는 <지아뿔>이라 한다.

□ 꽃...성주꽃·번성꽃·수레멜망악심꽃

제주 곳에는 하늘 옥황 서천꽃밭 주화신이 관장하는 여러 가지 꽃들이 등장한다. <성주풀이>에는 백지로 만든 종이공작물인 조화 <성주꽃>을 성주상에 올리며, 생명력이 강한 겨울 음지의 동백꽃을 가지고 생명꽃·번성꽃·환생꽃의 상징물로 이용하기도 하며, 띠와 갈대를 이용하여 만든 죽음의 꽃을 <수레멜망악심꽃>이라 하며, 아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할망 구상심할망이 들고 다니며, 재앙을 주는 상징의 꽃으로 쓰기도 한다.

14)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p.40.

□ 나비다리

사람이 죽으면, 초상 소상 대상 삼년상을 마치고, 그 사이 이승에서의 미련과 집착, 원한으로 뭉친 부정을 씻고, 진 살[肉身]이 다 썩어 질고 무거운 이승의 짐을 벗어야 저승으로 간다. 살이 녹아 뼈만 남은 홀가분한 몸이 기체 분신처럼 가볍게 되었을 때, 육신의 옷을 벗고 저승으로 가게 되며, 그때 비로소 나비가 되어 나비다리[黃蝶橋]를 건너 저승 상마늘에 가 새로운 생을 받아 저승에서의 새 삶을 산다고 한다.

□ 고리동반(신화상징, 주술상징의 꽃)

‘고리동반’은 큰굿에 중요하게 쓰이는 제물(祭物)이며, 신화의 내용으로 가득한 신화상징물로 기메전지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또 부정과 병(病)=전상(스룩)을 내쫓는 주술상관물로써 ‘전상떡’이라고도 한다. ‘고리동반’은 제주 굿의 토대가 되는 세 뿌리 ‘신(神) 뿌리’ ‘꽃(呪花) 뿌리’ ‘전상[業] 뿌리’ 중 ‘꽃의 뿌리’인 주화신(呪花神) 꽃감관의 신화 <이공본풀이>와 ‘전상(전생의 업보) 뿌리’가 되는 <삼공본풀이>의 신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전상’을 쫓는 ‘제오상계’¹⁵⁾의 용놀이(갈룡머리)의 굿법으로 만들어진 주술적인 떡이며 기메전지로 굿에 없어선 안 될 떡이다.

‘고리동반’은 쌀로 만든 방울모양의 방울떡 7개와 넓은 방식떡 1개, 덧섭[생죽]으로 엮어 고리처럼 이를 고리동반너울지로 싸고, 위쪽 한가운데서 마감하여 중앙에 동백꽃을 꽂은 형태로 구성돼 있다. 고리동반의 신화상징은 이공본풀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주술상징은 용놀이와 전상놀이를 구성하며 굿법과 고리동반 최고 제1의 떡, 꽃, 지전이며 기메다. 제주 굿의 수수께끼와 굿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해답은 고리동반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통합하며 굿의 막판 공시풀이에서 해체되는 과정을 굿과 함께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고리동반은 굿에서는 단순하게 제상에 올려 신들을 대접하는 제물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굿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신의 역할도 하고, 부모

15) 아직 참석하지 못한 신들을 다시 청신하는 제차.

역할도 하고. 그러니 일반 사가집에 굿을 가거나, 심방집도 가고, 제일 끝마 무리에 가서는 <공시풀이>를 하고나면, 고리동반을 풀게 됩니다. 풀어가지고 그 청너울과 방석떡은 심방집에 가져가, 심방집 당주상에 올리고, 방울떡은 본주에게 줍니다. 왜 방울떡을 주느냐면 자식을 번성시켜 주시라 하는 거지요. 월광아미에게. 월강아미가 이젠 본주에다 떡을 주는 거지요. 떡을 쥐서 치마를 이리 벌리면 거기 산판을 놓고서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주라고 치마로 복을 담아 가는 거지요. 그 고리동반을 풀었을 때, 심방은 이런 사실을 합니다. “청너울도 풀어맞자. 백너울도 풀어맞자. 동도 치우자. 서도 치우자. 남도 치우자. 북도 치우자.”하여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치우자는 거지요. 치우고 나면, “우진제비¹⁶⁾를 돌아보니까, 밤 밭에 밤이 열렸구나. 아들에게 동글동글 딸애기 동글동글.” 이렇게 사실을 해 나가지요. 자손들을 번성시켜달라는 기원의 말이지요. 그리하여 치마로 방울떡 일곱개를 벌려 받고 산을 받고(점을 치고) 하지요.

고리동반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공본풀이>의 내용대로 어머니(월강아미)가 신돔박낭 아래서 청대섭에 목을 매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일곱 개의 방울떡을 땀뿍 돌려 엮어 돔박낭(동백나무) 상가지에다 꼽는 거고. 방울떡 일곱 개는 일곱은 많다는 걸, 번성을 뜻하니 자손의 번성을 시켜 달라는 거고, 일반 사가집에 사당클을 댔을 때, 고리동반은 역가상[보답상]에 올렸다가 역가상[役價床]에서 역가 돌려매면, 시왕당클로 올라가고, 시왕당클로 올라가면, 일단 끝이 나는데 나중에 <공시풀이> 할 때는 공시상에 올리고 굿을 한다. 가령 안에서 처음 천제석궁 당클 앞에 역가상을 놓고 <보세감상> 한다거나 <초이공맞이>를 할 때는 역가상[보답상]에 고리동반을 올렸다가 끝나면 고리동반은 안시왕당클로 간다. 그 다음엔 또 본향으로 가고, 또 마을영신 당클로도 가고, 왔다 갔다 하지요. 고리동반이. 시왕맞이 할 때는 밖으로 나오잖아요. 시왕을 청하고 난 다음 역가 돌려매면 고리동반은 시왕당클로 올라가는 거지요. <시왕맞이>가 끝났다 하면 <공시풀이> 때, 고리동반은 마지막 공시풀이를 끝으로 풀어서 너울지와 방석떡은 심방이 가지고 가 당주상에 올리고, 방울떡 안팎 일곱 방울은 본주에게 주면 안주인은 치마로 받아 간다. 방울떡은 자손의 번성 시켜주는 떡이다.¹⁷⁾

16) 굿에 나오는 지명. 선홀리 지경의 지명도 ‘우진제비’가 있음.

17) 2008년 1월 19일 10시.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 김운수 회장과와의 인터뷰. ‘고리동

□ 육고비¹⁸⁾

굿을 할 때 춤을 추는 심방과 악기를 두드리는 소미의 관계는 무조선젯부기 삼형제와 악기의 신 너사메너도령의 팔자동관은 유학형제 법¹⁹⁾에 의한다. 이들이 의형제를 맺었던 증표가 되는 전지를 ‘육고비 육항렬’이라 한다.

어주에삼녹거리²⁰⁾에 너사메삼형제²¹⁾가 비새(悲鳥)같이 울고 있었다. “너희들은 어째서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부모와 일가친척 없어 울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로구나. 이리 와서 우리 육 형제나 마련하자.” 어머니의 물명주 단소꽃[속옷] 왼쪽 구멍에서 오른쪽 구멍으로 나와 위·아래 육형제가 되었다.

삼형제는 두 이레 열나흘 동안 북소리를 울려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려내었다. <큰굿>은 두 이레 열나흘 삼천천제석궁에 북을 울리는 것이며, 삼천천제석궁에 갇힌 어머니를 구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서광베포땅 어주에삼녹거리에 큰집을 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이승 삼하늘’을 차지하게 하였다. 북·장고 등은 너사메너도령에게 지키게 하였다. 너도령 삼형제는 악기의 신이 되었다.

□ 갈룡머리

<갈룡머리>는 신들을 모시는 당클(선반에 매어놓은 祭壇)에 청룡·황룡 두 구렁이를 시각적 효과를 위해 양쪽 당클에 긴 광목천을 바닥까지 늘어지게 드리워 놓은 것이다. 당클은 하늘이고, 바닥은 땅이라면, 구렁이가 머리는 하늘에, 꼬리는 땅에 드리워진 것이다. 이 대사[大蛇]를 잡는 놀이를 <용놀이>라 한다. <용놀이>는 ‘천구아구대맹이’라는 큰뱀[大蛇]을

반에 대하여.

18) 문무병, 『제주도의 굿춤』, 도서출판 각, 2005, p.33.

19) 무조선과 악기의 신 모두 팔자를 그려쳐 굿을 했고(八字同官), 굿을 하기 위하여 ‘한 배 형제’가 되는 의식을 행하여 의형제를 맺었다(儒學兄弟).

20) 무조 삼형제가 너사메너도령을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는 서광베포땅에 있는 삼거리.

21) 너사메너도령 삼형제 : 무조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고 樂器의 神이 되었다.

잡는 회극적인 놀이굿이다. 이 <용놀이>를 다른 이름으로 <갈룡머리> 또는 <아공이굿>이라 하며, 큰굿의 <젯상계>나 <제오상계>에서 행해진다. <젯상계>의 제차를 보면, ① 풍류놀이→② 방애놀이→③ 전상놀이 → ④ 용놀이(갈룡머리)→⑤ 뱀장사놀리로 진행되는데, ③전상놀이는 ‘전상내 놀리는 굿’으로 고리동반을 ‘전상떡’이라하며, 심방이 들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의 아픈 부위에 대고 병난 곳을 “전상이여 만상이여”하며 전상을 쫓는 굿, 아공이 전상내놀림 굿이라 한다.

3.1.3. 종이탈

□ 영감탈

<영감놀이>에서 영감신의 분장은 종이탈을 쓴다. ‘종이탈’은 탈놀이 형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감신을 전형화하는 소도구이다. 단순히 백지로 얼굴을 가릴 정도의 소박한 가면이다. 백지로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는 악신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부정적 관념이거나, 악신은 무형의 존재라는 관념의 표현이며, 인간에게 재앙이나 질병을 주는 불가시적인 공포의 대상을 안전에 노출시킨 회극적 형상화이다.

<영감놀이>에서 영감의 분장은 여기애다 병것을 쓰고 햇불을 들고 담배를 피워 물고 등장한다. 제장의 바깥에서 안으로 등장하는 악신은 제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극적이며 괴이하고 충격적인 효과를 노린다. 반면에 악신의 상대역인 선신은 말쑥하고 의젓한 관복차림이 수심방이 맡는다. 이와 같이 강한 힘(=외세)을 지독히 초라한 모습으로 분장시켜 파괴적이고 역설적인 과장을 함으로써 해학과 풍자를 조장하는 것이다.²²⁾ 그리하여 신을 눈앞에서 조롱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신을 인간이 재판하는 과정’을 연출하여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 거지탈

<전상놀이>에서 장님과 거지가 종이탈을 쓰고 등장한다. 심방은 “금정

22) 文武乘,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206.

옥술밭(요령)둘러 받아 오리정 전송처로-”하고 창하면, 삼공신인 장님 거지가 등장한다. 옷상실에 사는 <강이영성이서불>와 알상실에 사는 <홍은소천>이 흉년이 들자 서로 위·아랫 마을로 동냥하러 가다 도중에서 만나 부부인연을 맺는다.

하르방 : 어드레 올라가는 할망이고.

할망 : 우리집은 가난한 옷상실이 부자칩이엔 해여네 그리 올라감이라.

하르방 : 알상실도 흉년들었고나.

할망 : 흉년 들고 말고.

하르방 : 옷상실도 흉연 광풍이 불언 모든 농사가 다 벨망해부런. 알상실
에나 가문 좀
얻어먹어지카.

할망 : 알상실도 비도 안 오고. 보리농스 바짝 몰라부런 막 가난허연,
옷상실더레 얻어먹으레 올라삼이주.

하르방 : 할망도 홀할망이라.

할망 : 나도 홀할망이우다.

일동 : (웃음)

하르방 : 나도 홀아방, 홀하르방이라.

할망 : 홀하르방. 하르방허고 나허고

하르방 : 할망허고 나허고 오닐부떠 굶이 자나 허주.

윗마을 옷상실에 사는 강이영성이란 장님거지 하르방과 아랫마을 알상실에 사는 홍은소천이란 장님거지가 쓰고있는 종이탈을 거지탈이라 한다. 이들은 길에서 만나 부부가 되고, 거지차림에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막대기를 앞뒤로 잡고 서로 의지하며 종이 탈을 쓰고 있다.

□ 구삼싱탈

구삼싱할망이 탈을 쓰고 등장하는 <서천꽃놀이>²³⁾는 1982년 하도리

23) 채록 : 1982년 3월 7일(음 2월 12일) 하도리 면수동 당굿. 공연장소 : 북계주군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바닷가 여씨불독당 출연 : 양창보(남무), 강신숙(남무). 채

면수동 당곳에서 연행된 놀이곳이다. 하도리 면수동의 당신은 ‘여씨 삼신 불도 할망’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잘 보살펴주는 산육신(産育神)이기 때문에, 당곳에서 본향당신을 청할 때는 일반곳의 <불도맞이>처럼 불도할망을 청하고, 그와 동시에 아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구삼신 할망’을 내쫓는 <서천꽃놀이>를 한다. 하도리 면수동 당곳의 <서천꽃놀이>는 일반 사가 집 큰곳의 불도맞이에서 하는 <구삼신냄>과 비슷하다. 다만 당신이 ‘여씨 삼신불도할망’이이기 때문에 본향당신을 청하는 것이 맞이곳에서 할망 다리를 놓는 과정과 유사하며, 놀이적인 여흥을 살리기 위하여 악신 구삼신 할망이 종이탈을 쓰고 등장하는 제주도 종이탈굿놀이로 발전한 것이다.

구삼성 : 어느 거여, 이거?(가리키며) 그러니 내 안 곱았어,
 내가 잘 주면, 요걸 다 제초시경 갈 꺼고, 안 주면 요게
 (악삼꽃을 비벼 흔들며)닥닥닥다...털어가민
 청대ㄱ튼 청스룩질, 흑대ㄱ튼 흑스룩질
 광대ㄱ튼 광대스룩, 어, 다 불러 즐꺼고,
 어, 요게 닥다 털어가민, 부락 집집, 가호마다 풍문조혜 불를 꺼고
 수심방 : 겐디, 잘 주께.
 구삼성 : (더 기고만장하여) 부베간 싸움 부찌고, 머리 매탁시기고,
 서방들랑 배겼드레 불러당 노름판만 시기곡,
 각시덜랑 짐의서 부지깽이(악삼꽃을 비벼 흔들며) 정지서 닥다닥다 두들명
 바가지 극게 만들고, 영, 내 열두 승험을 다 불러 즐 꺼이다.
 수심방 : 봐라, 그래 베려보시오.
 구삼성 : 그렇지.(수심방이 열거하는 품목마다 ‘어’하고 대답한다)

□ 입춘탈굿놀이의 탈

[돌하르방탈]

제주도의 오방신장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 입춘굿이 탐라왕이 친경적전하던 유습이며, 국행사전의 나례(儼禮) 의식으로 제주땅에 악

귀를 물리치고 풍농을 권장하던 풍농굿(儺戲)의 확대라 한다면, 제주읍성을 지키는 수호신의 기능을 가진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오방신장이다.

[오방각시탈]

오방신장무로써의 돌하르방춤과는 다른 세경땅을 놀리는 오방 각시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방각시춤은 오방색 각시탈을 쓴 기생들의 춤이다. 오방각시탈은 풍농굿에서 세경 밭과 동일시 된다. 그러므로 오방각시탈춤은 여인의 춤으로 의인화된 밭갈이의 춤이다.

[사농바치탈]

포수는 재앙을 물리치는 자이다. 자연적인 재앙을 물리치는 포수는 총을 들고 나타나지만, 사회적인 재앙을 물리치는 포수는 총 대신에 다른 것을 들고 나타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명칭도 달라진다. 통영 오광대의 ‘포수탈’과장에 등장하는 포수는 총을 가지고 자연적인 재앙이면서 사회적인 재앙일 수도 있는 사자를 징벌하는데, ‘풍자탈’과장에 등장하는 말뚝이는 말을 하면서 사회적인 재앙을 징벌한다. ‘포수탈’에서 사회적인 재앙은 양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풍자탈’에서의 사회적인 재앙은 분명히 양반이다²⁴⁾.

[새(꿩)탈]

‘새’는 부정(不淨), 사(邪), 재앙(災殃)이다. 제장의 부정을 씻는 곳을 ‘새[鳥]를 다리(쫓는)는 곳’ 즉 ‘새드림’이라 한다. 제장의 부정을 쫓아내어 제장을 정화하는 곳을 포수가 새를 쫓는 곳, 재앙을 쫓아내는 곳으로 바뀌었고, 이때 새탈이 등장한다.

[하르방탈]

입춘탈놀이의 백미는 처첩갈등을 희화한 싸움마당이다. 싸움 형태의 굿과 성행위 형태의 굿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흔히 복합된다. <입춘굿놀이>의 기록을 보면,

二人着假面飾以女優 有妻妾相妬之容 一人着假面飾以男優 謾作調停之樣而

24)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81, 41쪽.

皆露齒如笑 形甚傀儡²⁵⁾

두 사람이 여자 배우들이 탈을 쓰고 등장하며, 처와 첩이 투기하여 서로 다투는 장면을 남편인 듯한 탈을 쓴 광대가 등장하여 거짓부렁 서로 말리는 양하면 모두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데, 이러한 장면은 매우 ‘꼭두각시놀음(傀儡)’과 비슷하고 하였다. 이 글에서 ‘괴뢰(傀儡)’와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괴뢰(傀儡)’의 뜻은 ‘인형극’ 또는 ‘꼭두각시놀음’이라 해야 정확한 뜻풀이가 되겠지만, 이 글을 쓴 김석익은 ‘괴뢰’를 아마 ‘탈춤’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 같다.²⁶⁾

[각시탈]

겨울과 여름의 싸움을 벌여서 겨울을 물리치면 농사지을 수 있는 계절인 여름이 빨리 온다는 것은 이른바 유감주술의 원리에 의한 주술이다. 그런데 유감주술의 원리는 싸움 형태의 굿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행위 형태의 굿 역시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경놀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에서 도망쳐 나온 여인이 면화를 따다가 들판에서 강간을 당하고 임신하여 출산한다. 낳은 아이를 ‘팽돌이’라 이름 짓는다. 놀이굿의 내용은 오광대, 산대놀이, 해서탈춤의 할미과장에서 영감의 첩이 아이를 낳는 장면 또는 산대놀이나 해서탈춤의 노장과 장에서 취발이와 소무의 성행위 후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대목과 흡사²⁷⁾하다.

[할망탈]

입춘탈놀이의 할망탈은 <불도맞이>의 ‘구삼심념’에서 검고 현웃을 입고 등장하는 늙은 초라한 모습의 ‘저승할망’과 비슷한 모습이다. 각시가 생명과 젊음을 상징한다면 할망은 겨울과 죽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각시와 할망의 싸움은 겨울이 가고 입춘이 오는 계절의 전환을 주술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25) 김석익, 『탐라기년』.

26) 조동일 앞의 책, 62쪽.

27) 앞의 책, 62쪽.

3.1.4. 인형

□ 허맹이인형 : 짚으로 만든 인형.

<칠성새남>은 환자의 병은 누가 뱀을 죽여버린 것을 처음 보고 그 죄를 뒤집어 써서 걸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뱀을 죽인 자를 찾아 처형하여 환자가 무죄임을 밝히는 동시에 죽은 뱀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때 뱀을 죽인 자를 찾아내어 죄를 다스리는 대목을 <허맹이놀림>이라 한다. <허맹이놀림>은 뱀을 죽인 자를 교만한 악신 <허맹이>라 단정한다. 그리하여 <허맹이>²⁸⁾를 호출해다가 그가 뱀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는다. 그래서 허맹이를 가다귀섬으로 귀양보내고 죽은 뱀을 환생시켜내는 극적 행위를 연출한다.²⁹⁾

수심방 : 급창(及唱)!(큰 소리로 부른다)

소무 : (문 밖에서) 예.

수심방 : 거, 문 뱃기(밖예) 나고 보라(나가 보아라)장안 안에 연기할량(판치고 돌아다니는 閑良)ㄴ똥(같은) 하늘은 보고 땅은 못보는 허맹이라 혼 놈이 있겠느냐?

소무 : 예, 이디 있습니다.(허맹이 인형을 들고 들어온다)

수심방 : 이이 알로(땃돌 아래로) 업질러라.

소무 : (땃돌 밑에 엎드려 놓는다)

수심방 : 얼굴을 쳐들러 보라. 허, 이놈 얼굴을 보난(보니) 양진(얼굴은) 서뽀 식치(세뽀 세치)나 흐고 눈습(눈썹)은 붓으로 그린 듯흐고 나. 너 이 놈, 어찌 그리 땡기멍(다니면서) 민간에 작폐 짓을 흐느냐? 너 바른 대로 말을 아니흐여서는 각각(脚脚) 울을이(갈기갈기) 찢어당 불천수(燒却)시길 테니 바른 대로 말을 흐라.
(생략)

여기서 수심방은 굶을 집행하며, 신병자의 무죄를 입증하고, 칠성신을 죽인 자는 허맹이라는 악신임을 단칼하여 죄를 밝혀내는 재판관의 역할을

28) 짚으로 만든 인형, 또는 나무가지에 형짚을 씌워 만든 인형.

2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900.

한다. 1인 2역을 하는 것이다. 소무는 굿의 진행을 도우면서, 인형 허멍이와 사령의 역할을 하여 1인 3역을 한다.

□ 아기 인형

<본향다리> 제차 중 <토산당신 놀림>의 <아기놀림>에서 나오는 인형이다. <아기놀림>은 일뤼할망 본풀이를 해 나가다, 잃은 아기를 찾는 대목에서 부터 신화의 내용을 극화한다. 그 순서는 심방이 먼저 아기를 찾아 돌아다니는 춤을 추다가 제상 앞에 놓여 있는 아기인형을 등에 업고 업은 아기를 놀리며 짝자꿍 죄암질을 하고, 인형아기를 업은 채로 힘겹게 신칼을 들고 방아를 찧는다. 이때는 “방아노래”를 한다. 방아를 찧은 다음, 산대를 가지고 체질하는 모습의 춤을 추고, 폐자 앞자락으로 키질하는 시늉을 하고, 이어서 아이를 부르고 목욕을 시키는 시늉, 아기를 구덕에 놓고 흔들며 채우는 시늉을 하며, 자장가를 부르고, 또 아기의 몸에서 이를 잡아주는 시늉을 하며 祭場을 한바탕 웃기고, 밤이 되면, 발로 아기 구덕을 흔들며, 손으로는 삼실을 뽑고, 감는 시늉을 하며, 마지막에는 아기 인형을 낡힌 채롱을 들고 본주와 구경꾼에게 인정을 받고 아기 인형을 제상에 올리면, <아기놀림>은 끝난다.

□ 메치메장

심방이 무혼[撫魂]굿을 할 때, 짚으로 허수아비처럼 만든 가시체(假屍體)를 ‘메치메장’이라 한다. 무혼굿에서 심방은 메치메장을 등에 업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고인이 입었던 상의를 들어 흔들며 큰 소리로 삼혼을 부르고, 물에 나와 메치메장을 풀어 놓혀 염습을 한다. 이때 메치메장은 죽은 망자로 심방은 진짜 시체처럼 생각하고 물에서 건져 올려 염습하고 장례를 행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시체의 인형이다.

□ 영집과 쌀가루

무혼굿에서 죽은 영혼이 환생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쌀가루를 담아 두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영집’이라 하고, 그 영집의 쌀가루를 뿌려

형상을 보고 점친다. 무흔곳은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천막 위에 술을 뿜고, 그 위에 영집에 있던 쌀가루를 뿌리면, 어떤 형상이 그려지는데 그 모양을 보고 풀이한다.

□ 영그릇과 삼동냥용얼래기

영을 건지기 위해 깊은 바다로 뺀 바위의 끝까지 가서 영을 담은 그릇을 물속에 넣는다. 영그릇은 밥주발에 쌀을 가득 채우고 무명으로 싸맨 것이다. 영그릇과 머리빚(남선비 신화에 나오는 삼동냥용얼래기) 하나, 소주 한병을 기다란 줄로 함께 묶어 바다밑까지 내려보내고 그 줄의 다른 한 끝을 곳창까지 연결시킨다. 이것은 시체의 위치가 모래 속에 있는지 바위 틈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3.2. 기메의 형태와 기능

3.2.1. 형태와 기능

현용준은 ①감상기, ②체숫기[差使旗], ③영깃기[靈魂旗], ④성줏기, ⑤군문기, ⑥살전지, 이 4형 6종을 제1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거의 앞이 푸른 대에 백지를 묶어 맨 것으로 이런 형태는 감상기가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형태인데, 이것이 인형모양의 종이를 오려 달아매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은 강신(降神)의 춤에 쓰이기도 하며, 한편 고정시켜 신체로 쓰이기도 하여, 이동형 신체와 고정형 신체 두 가지로 쓰이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2의 유형은 ⑦오방기, ⑧오방각기, ⑨줄전기, ⑩시왕기, ⑪맹감기[冥官旗]로 이상 ⑦~⑪은 앞이 푸른 대에 매다는 일 없이 인형을 오린 종이로만 되어 있고, 그 인형은 한층 구상화 되었으며, 모두 고정된 신체로 붙이거나 걸어놓고 있다는 점이 같다고 하였다.

제3의 유형은 ⑫칠원성군 송낙, ⑬할망 송낙과 같은 고깔형을 기본으로 하여³⁰⁾ 인형을 오린 종이를 기타를 첨가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기능은 고

정된 신체로 쓰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⑭칠성신상은 인격화되어 있지 않아 별개 유형의 것이며, ⑮큰대는 여기에 긴 무명 또는 광목의 한쪽 끝을 묶어 매고 그것을 집안의 제상까지 연결시켜 놓는데 이를 <드리>라고 하며, 청신을 하면 신은 이 큰대를 통하여 하강하여 <드리>를 거쳐 제상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위의 것들과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기메의 9형 15종의 분류

| 유형 | 형 | 구조 | 기능 |
|----|---|---------------------|-----------|
| 1 | 1 | 앞이 푸른 대+백지 | 강신적 기능 |
| | 2 | 앞이 푸른 대+백지+인형지 | 이동형 신체 |
| | 3 | 앞이 푸른 대+인형지 | 고정형 신체 |
| | 4 | 앞이 푸른 대+백지+인형지+지전류 | 이동·고정형 신체 |
| 2 | 5 | 인형지 | 고정형 신체 |
| 3 | 6 | 고깔 | 고정형 신체 |
| | 7 | 고깔+인형지+소지+지폐 | 고정형 신체 |
| 4 | 8 | 뺨 모양의 신상 | 고정형 신체 |
| 5 | 9 | 앞이 푸른 대+술잎+장대+백지+요령 | 강신적 기능 |

이 표에서 4, 5유형을 제외하면, 제1유형의 것들은 ‘앞이 푸른 대+백지’의 기본 형태가 인형을 오린 전지의 첨가로 발달하고, 제2유형의 것은 고정된 신체로 붙이기 위하여 제1유형에서 인형으로 오린 전지만을 분리 독립시킨 것이라 할 수 있고, 제3유형의 것은 별개의 기본형태(고깔)에 인형을 오린 전지, 기타가 결부,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고 그 기능은 강신적 기능에서 이동형 신체로, 다시 고정형 신체로 변이해 간 것임을 알

30) 산육신은 불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그 신체도 불교적 영향의 고깔이 기본형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수 있다. 이렇게 고정된 신체로 점점 바뀌어져 가면서 그 인형이 점점 구상화해 간 것이라 하였다. 이어 현용준은 “인형을 오린 전지류는 어디서 나왔을까.”를 묻고, 현재 그 잎이 푸른 대에 묶어 맨 백지가 사람모양으로 구상화해 간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기매전지 전반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는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한 자료로 그의 통찰과 정리를 고맙게 생각한다. 필자의 여기에 기매·전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한편 기매와 기매 아닌 것의 유기적 관계와 함께, 각종 종이무구들의 미학적 검토를 보태는 동시에 굿판에 쓰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1.2. 기매의 용도

기매는 굿판을 장식하여 신들의 세상으로 만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을 모시는 안내인의 역할과 현실세계의 인간들이 신들과 감응하게 하는 감상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매는 굿판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이는데, 장수가 전선에 출정하듯 신을 인도하는 깃발이 되며, 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神體)로 쓰이며, 신의 자리 또는 신의 영역, 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징표이며, 실제로는 굿에 쓰이는 소도구, 신의 세계, 즉 신들의 사는 궁전의 무대장치가 된다.

① 기매는 신을 안내한다.

심방은 굿을 집행하는 사제자다. 심방을 감상관이라 한다. 감상관(監床官)은 신에게 드리는 제물(祭物)과 폐백을 검사하는 관리로 마을의 토주관(土地官)이라는 본향당신이 그 신역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심방은 감상관으로서 감상기를 들고 제장에 여러 가지 의식을 집전하게 되는데, 이때 감상기는 심방이 감상관으로서 신들을 인간세계에 내려오게 하고, 내려온 신들은 본향당신의 역할을 하여 오리 밖에서 굿판으로 모셔 들여 제장에 들으면 신의 법에 맞게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자다. 결국 심방이 들고 있는 감상기는 심방을 감상관이며 ‘질토래비[지로인]로 만들어 1만8천신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② 기메는 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기메는 군기[軍旗]처럼 집단의 야영지나 소속부대의 위수지역을 나타낸다. 기를 새우고 깃발이 날리면 ‘신나라 만나라’ 한다. 신들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오방기, 오방각기, 군문기

③ 기메는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체(神體)이다.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 심방이 들고 있는 감상기[신감상즈절영기]는 신을 청해 들일 때 심방이 들고 춤을 추며 맞아들이는 깃발이다. 모든 하늘의 신들은 본향당신이 나아가 맞아들이는 것이므로 감상기가 곧 토지관의 기가 된다. 즉 감상기는 감상관을 대신하며, 본향당신을 대신하는 신체라 할 수 있다. 예를 더 들면, 오리정신청례 <본향다리>에서 본향당신의 역할을 한다. 그 증거는 <본향다리>에서 본향당신의 차림, 옛날 사냥을 하던 장수의 모습, 활을 쏘는 화상통을 묶는 ‘팔찌거리’를 팔에 묶고, 신갈과 감상기를 활로 잡고 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본향신의 모습이다. 저승차사 강림이가 지상에오는 모습은 심방이 등에 저승의 문서인 적패지를 달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기메는 신의 몸[神體]이다. 심방은 기메전지를 몸에 두르고 있는 살아있는 신체이며 신의 상징이다.

④ 기메는 여러가지 상징물로 쓰인다.

제주의 굿 <성주풀이>는 건축의례로 강태공서목시란 신성한 목수를 청하여 연극적으로 모형의 집을 짓는 놀이굿이 있다. 이곳에는 건축에 필요한 상징물들이 동원되는데 성주신을 모신 신체를 상징하는 성주꽃[전지류], 신축하는 집의 ‘생깃지등(성주대)’로 쓰일 재목으로 ‘영등산에서 베어온 덕(德)든 나무’를 상징하는 성주대[기메], 주춧돌로 쓰이는 시루떡 등을 이용, 굿 현장에서 새집 하나를 완성한다. 앞에 소개한 기메로 불도맞이 상차림에 나오는 고깔로 할망송낙과 칠죽대는 삼심할망을 상징하고 칠원성군 송낙은 칠원성군을 뜻한다. 큰굿에 쓰이는 전상떡이라는 ‘고리동반’은 이공신 할락궁이의 어머니 월강아미 죽음과 환생을 상징한다.

⑤ 기메는 하늘이나 하늘 길을 표시한다.

큰대는 본향당의 당나무[神木]인 굿판에 설치한 우주목으로 하늘의 신

들이 내려오는 하늘길[下降路]이며, 당클은 임시로 건설한 신들의 궁전, '하늘 나라'다. 당클의 기메전지들을 보면, '궁전'을 상징하는 전지[紙錢類]로 궁전의 커튼처럼 쓰이는 '살장'을 비롯하여, 살전지, 발지전과 너울지, 청사초롱, 오방기와 오방각기 등 모든 지전류가 궁전을 장식하는 상징물로 신의 궁전을 나타낸다.

⑥ 기메는 신이 사용하는 무기(활)로 쓰인다.

오리정신청쾌 <본향뵈>에서 보면, 한라산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는 본향당신은 힘도 장군, 술도 장군, 밥도 장군이라는 장수(將帥)신으로 활을 들고 사냥하는 모습으로 제장에 등장한다. 본향신은 펄쩍펄쩍 뛰며 겨누는 활은 감상기가 대신한다. 기메로서 감상기가 이 대목에선 활로 쓰이고 있다.

4. 결 론

제주굿은 본풀이[신화]·맞이·놀이 등 개별의례를 중심으로 굿의 내용이 체계화 정서화 되어 '차례 차례 재차례' 굿을 이루고 있으며, 큰대를 비롯한 기메전지, 당클과 다리 등의 설치를 통하여 굿판의 상징체계와 수평적 수직적 우주관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주굿에서 굿판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메·전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메·전지는 제주의 모든 깃발과 종이로 오려 만든 무구(巫具)를 통칭하는 용어다. 기메·전지는 굿판을 신들의 사는 '저승세계'로 만드는 무대 장치이며 지상에 세운 가상적 상징적인 우주라 할 수 있다.

굿판은 마당에 큰대를 세우고, 상방 마루에 당클을 매고, 큰방과 마당에 제상을 차리고, 심방들이 '기메전지'를 오려, 걸 것은 걸고, 맬 것은 매고, 놓을 것은 놓고, 세울 것은 세워야 완성된다.

기메 중 큰대는 마을의 토주관 본향당신을 모신 신당의 당나무[神木]와

같은 우주의 나무[宇宙木]를 집안에 임시로 설치한 상징적인 깃발이다. 우주목이란 하늘 길을 여는 땅의 가장 높은 산 정상의 신목(神木)으로 신의 내려오는 길[下降路]이며, 임시로 집 마당에 가설한 당나무이다.

하늘의 모든 신들은 <초감제> 때, '군문열립'을 하여 '하늘 신궁의 문'이 열리면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굿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한 신들의 세계, 저승을 설계한 당클과 제상을 하늘과 이어주는 기메 중 가장 큰 기메[깃발]인 큰대를 세우는 것은 이 지상에 신들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클은 상방(上房) 마루 위쪽 사면 벽에 널빤지를 선반처럼 달아맨 제봉(祭棚)으로, 굿판에 임시로 건설한 신들의 궁전인데 그 특징은 '살장'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다. 당클은 신의 세계, 굿판에 임시로 건설한 신의 궁전이다. 제주의 큰굿은 사방 벽에 설치한 당클을 기본 제상으로 삼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대상 신령에 대한 제상과 제의의 진행에 필요한 제상 데령상, 공깃상, 보답상을 큰상 앞에 차린다. 사방 벽에 당클을 맨 굿을 4당클굿이라 하며, 이것들은 신의 나라를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신들의 나라는 하늘에서 땅까지 4개의 단계로 구분지어 각 신역의 위계를 나타낸다.

다리는 신이 오는 길이다. 맞이굿 질치기(길뒹이)의 대상이 되는 가시덤불[荊棘]이며, 이 길을 잘 치우고 뒹아 광목천을 깔아놓은 것을 '다리'라 한다. 제주도의 굿에서 '맞이'라 하는 굿은 신을 맞이하는 굿[迎神儀禮]이다. 맞이굿에서 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길을 닦는 굿을 특히 '질침굿' 또는 '질치기'라 한다. 이러한 길을 닦는 의례는 '신 길을 바로잡는' 것이며, '다리를 놓는' 것이다. 신 길을 바로잡는 것은 신이 오시는 길, 인간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는 것이다. 이 길을 닦아 하얀 광목 천을 깔았을 때, 길은 완성된다. 그 길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길이며, 망자가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고이 갈 수 있는 길이다.

기메는 굿판을 장식하여 신들의 세상으로 만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을 모시는 안내인의 역할과 현실세계의 인간들이 신들과 감응하게 하는 감상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메는 굿판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이는데,

장수가 전선에 출정하듯 신을 인도하는 깃발이 되며, 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神體)로 쓰이며, 신의 자리 또는 신의 영역, 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징표이며, 실제로는 곳에 쓰이는 소도구, 신의 세계, 즉 신들의 사는 궁전의 무대장치가 된다.

첫째, 기메는 신을 안내한다. 마을의 토주관(土地官)이라는 본향당신이 그 신역을 대신한다. 심방이 들고 있는 감상기는 김장관인 심방이 1만8천 신들을 안내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기메는 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기메는 군기(軍旗)처럼 집단의 야영지나 소속부대의 위수지역을 나타낸다. 기를 세우고 깃발이 날리면 신들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메는 신체(神體)이다. 모든 하늘의 신들은 본향당신이 나아가 맞아들이는 것이므로 감상기가 곧 토지관의 기가 된다. 즉 감상기는 감상관을 대신하며, 본향당신을 대신하는 신체라 할 수 있다. 저승차사 강림이가 지상에 오는 모습은 심방이 등에 저승의 문서인 적패지를 달고 있는 것으로 상징화되기도 한다.

넷째, 기메는 여러가지 상징물로 쓰인다. 모형의 집, 신을 상징하는 성주꽃[전지류], 신축하는 집의 '성주대'[기메], 주춧돌로 쓰이는 시루떡 등을 이용 곳 현장에서 새집 하나를 완성한다. 불도맞이 상차림에 나오는 고깔로 할망송낙과 철죽대는 삼싱할망을 상징하고 칠원성군 송낙은 칠원성군을 뜻한다. 큰곳에 쓰이는 전상떡이라는 '고리동반'은 이공신 할락궁이의 어머니 월강아미 죽음과 환생을 상징한다.

다섯째, 기메는 하늘이나 하늘 길을 표시한다. 큰대는 본향당의 당나무[神木]인 곳관에 설치한 우주목으로 하늘의 신들이 내려오는 하늘길[下降路]이며, 당클은 임시로 건설한 신들의 궁전, '하늘 나라'다. 당클의 기메전지들을 보면, '궁전'을 상징하는 전지[紙錢類]로 궁전의 커튼처럼 쓰이는 '살장'을 비롯하여, 살전지, 발지전과 너울지, 청사초롱, 오방기와 오방각기 등 모든 지전류가 궁전을 장식하는 상징물로 신의 궁전을 나타낸다.

여섯째, 기메는 신이 사용하는 무기(활)로 쓰인다. 한라산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는 장수(將帥)신으로 활을 들고 사냥하는 모습으로 펼쩍 뛰며 겨누는 활은 감상기가 대신한다. 감상기가 이 대목에선 활로 쓰이고 있다.

- 핵심어: 기메, 전지, 당클, 우주목, 당나무, 바람의 미학

<참고문헌>

김석익, 『탐라기년』, 1918.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3.

———, 『제주도의 굿춤』, 도서출판 각, 2005.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81.

현용준, 「제주도 무의의 기메고」, 『문화인류학』제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Abstract>

Flags and Shamanic Paper Materials in Jeju Gut

Moon Moo-byung

Jeju Gut, an exorcism originated from Jeju, has systematic and emotional contents with a focus on such individual ritual as Bonpuri(myth), Maji(greeting), and Nori(entertainment). It shows its symbolic system and a horizontal and vertical view of the universe through Keundae, Gimejeonji, Dangkeul, and Dari.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its system, it is significant to grasp the symbolic meaning of Gimejeonji.

Gimejeonji is a common term for all Juju's flags and shamanic materials made of paper. Gimejeonji is a setting that makes Gutpan the world of the dead, and it is also an imaginary and symbolic universe.

The making of Gutpan is completed when Keundae is put up, Dankeul is tied to Sangbangmaru, a sacrificial table is set in a big room and on the yard, Simbang puts Gimejeonji in place.

Keundae, the biggest flag among Gime, is a symbolic flag that represents a cosmic tree temporarily planted in the house like a shrine-tree in the God's room serving Bonhyangdangsin. A cosmic tree is a shrine-tree on the top of the highest mountain on the earth, which is a road where gods come down and a temporarily planted shrine-tree on the yard.

All the heavenly gods descend onto the earth when the door of the heaven is open on Chogamje. It means that the world of gods is made on the earth to make the temporary world of gods and put up Keundae, the biggest flag among Gime which connects Dankeul designed for the world of the dead and a sacrificial table.

Dankeul is Jeboong mounted on the wall of the upper Sangbangmaru like a shelf. It is a gods' palace temporarily built on Gutpan, and it is covered by Saljang. Dankeul is gods' world and god's palace temporarily built on Gutpan. In Jeju Gut, Dankeul mounted on the walls in four directions becomes basic sacrificial tables. And other tables including Deryungsang, Gongsitsang, and Bodapsang are prepared. Gut which has Dankeul mounted on the walls in four directions is called 4 Dankeul Gut. 4 Dankeuls divide gods' world into four sections, and gods' world falls into four levels from heaven to earth, representing gods' status.

Dari is a road on which gods descend. It is a thorn bush that is used to pave the road in Maji Gut. The cleared and paved road with white cotton cloth is called "Dari". "Maji" in Jeju Gut is the one that greets gods. It is Gut that paves the road for coming gods and going spirits. Gut that paves the road for coming gods is called "Jilchimgut" or "Jilchigi". This ritual is to correct the road for gods, and build a bridge (Dari). To correct the road for gods is to prepare the road for coming gods and human spirits going to the next world. This road is completed when white cotton cloth is put on the paved road. It is the road where gods

and humans meet, and where the spirits of the deceased can go to the next world without any lingering attachment to this world.

Gime serves not only as a guide that decorates Gutpan into the gods' world and that serves gods coming from the heaven but also as Gamsanggwan that helps humans in this world sympathize with gods. Gime is used as a variety of symbols of Gutpan. It becomes a flag that guides gods like generals going to the warfield. It is used as a god's body that plays the role of gods. It is a symbol that shows gods' status, domain, and authority. In reality, it becomes a tool, or a setting for a palace where gods live.

First, Gime guides gods. Bonhyangdangsin governing the village plays the god's role. Gamsanggi in the god's room guides 18,000 gods.

Second, Gime indicates gods' domain. Like a military flag, Gime indicates where barracks or garrisons are. When the flag is fluttered, gods become alive and active.

Third, Gime is a god's body. All gods from the heaven are greeted by Bonhyangdangsin, so Gamsanggi is a governor's flag. There, it is safe to say that Gamsanggi replaces Gamsangwan and that it is a god's body that replaces Bonhyangdangsin. The image of coming Geoseung Chasa (a death messenger) is symbolized as that of Simbang carrying Jeokpaeji on which people's fates are written down.

Fourth, Gime is used as a variety of symbols. A new house is built by using a model house, Seongju (god of the home) flowers,

and Seongjudae, Siru-tteok (steam-cooked rice cakes). A Gokkal (a white hood on the head) in Buldo Maji symbolizes Halmangsongnak, Cheoljukdae symbolizes Samsinhalmang, and Chilwonseonggun Songnak means Chilwonsenggun. Goridongban symbolizes the death and reincarnation of Wolgangami, a mother of Leegongsin Hallakungsin.

Fifth, Gime indicates the heaven or the way to the heaven. Keundae is a shrine-tree planted in Bonhyangdang as a cosmic tree which is a way to the heaven on which gods come down from the heaven. And Dankeul is a "heavenly world", or a gods' palace which is temporarily built. To take a look at Gimejeonji, a variety of symbolic materials such as Jeonji, Saljang, Saljeonji, Baljijeon, Neoulji, Cheongsachorong, Obanggi and Banggakgi symbolize a gods' palace.

Sixth, Gime is used as a gods' weapon. Gamsanggi replaces a general god hunting through Halla mountain with a bow. In this part, Gamsanggi is being used as a bow.

- Key words: Gime, Jeonji, Dangkeul, cosmic tree, shrine-tree, esthetics of the wind